

2004 봄호

마흔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소아암관련 미니도서관」 개관

<http://www.kclf.org>

미소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동아대학교의료원 부모모임 '동심회'

회 장 김숙여

어머니!

미소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길가 담장 노란 개나리가 겨울을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낸 그 꽃들이 너무나 반가운 건 왜일까요?

그건 아마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 때문이겠죠?

힘든 항암치료와 끝없는 검사들...

그런 우리 아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들은 오늘도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미소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희망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이들은 희망을 느끼고 사랑을 느낍니다.

어머니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면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지치고 힘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무서운 병마를 끝까지 이겨낸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환한 미소 가득한 얼굴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어머니!

겨울을 이겨내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고 스스로 꽃망울을 터트리는 꽃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지난 얘기하는 때가 올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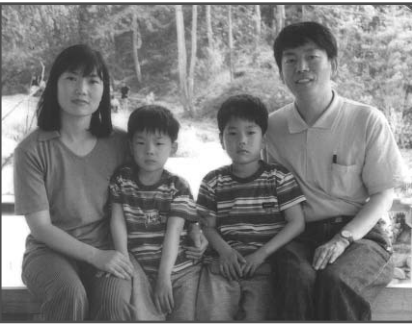
항상 희망을 잃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갔으면 합니다.

작은 이야기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말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정흠이에겐 14개월 위인 정빈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정빈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모든 것을 어리게 행동하는 이유로 우리 가족에서 실질적인 형은 동생인 정흠이였습니다. 정흠이는 형같이 의젓하고 듩직하게 형 정빈이를 챙겨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형이지만 어리게 행동하는 정빈이를 더 많이 걱정해야했습니다.



때때로 정흠이는 질투를 하며 “형아만 좋아하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흠이 정빈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2003년 8월에 우리 가족은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동안 여행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말 개학 일주일 전 정흠이가 혈색이 창백하고 자주 어지럽다 하여 빈혈인가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2003년 8월 27일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 받던 날...

“내가 죄인이야”를 되뇌며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말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지난 세월 정빈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순간순간 실오라기 같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겹쳐지는 많은 일들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형아만 봐준다고 정흠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나한테도 관심 가져 달라고 너무나 큰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정흠이

에 대한 사랑도 말할 수 없이 컸건만 정흠이는 아쉬움을 참지 못하고 더 큰 사랑을 달라고 이 큰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나 봅니다.

첫 관해 실패 재관해..

정흠이의 몸과 마음, 엄마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파 가슴을 거머잡아 봅니다.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려봅니다. 지금은 어려운 과정 잘 견디어 공고 1차 후, 2004년 1월 13일 형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이식 병동으로 면회 갔을 때 외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외로움과 이 어미의 외로움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피부에 숙주반응이 왔을 때 얼굴과 온 몸이 빨갛고 붉은 반점이 피었을 때 면회 온 엄마가 놀랄까봐 애써 안심시키듯 “엄마 형아 골수가 싸우고 있데..” 그 눈빛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그래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꺼야..”

그래도 세상에는 고마움과 감사할 일이 많음을 되새기며, 정흠이가 큰 사랑을 품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정빈아, 정흠이한테 골수 나누어주면 어떨 것 같아?”

“정흠이가 다시 행복해지면 저는 좋아요” 정빈이의 환한 웃음 속에 엄마도 웃어봅니다.

“정흠이 정빈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일시후원을 소개합니다.

● 일시후원이란?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을 소아암·재생불량성빈혈 어린이에게 지원하여 완치를 돕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후원처에 따라 지급액수 및 시기가 달라집니다.

● 일시후원 절차

1. 절차 :

접수
각 센터
사회복지사 또는
재단 사무국

상담
관련서류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
지사와의 상담
실시

심사
재단 사무국
최종심사

지원
치료관련 영수증
확인 후 지원

2. 접수처 : 재단 사무국 ☎ 02) 766-7671 / 광주 훈 사랑의집 ☎ 062) 234-5528
여의도 훈 사랑의집 ☎ 02) 704-8310 / 대구 훈 사랑의집 ☎ 053) 253-7671
신촌 훈 사랑의집 ☎ 02) 363-7671 / 부산 훈 사랑의집 ☎ 051) 244-7677

2003년도 기금

후원단체	후원액(단위:원)	후원단체	후원액(단위:원)
개인후원자(담서원, 담경선)	5,000,000	(주)네오위즈	12,600,000
개인후원자(이종일)	200,000	(주)CJ홈쇼핑	30,000,000
국무조정실 여직원회	1,000,000	(주)선익시스템	875,140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10,000,000	(주)쇼박스	10,000,000
모태산부인과	2,500,000	(주)에스콰이아	12,600,000
문창초등학교	12,763,300	(주)원전커머스	20,000,000
삼성SDS	17,000,000	차카게살자(드림팩토리클럽)	44,856,906
삼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000,000	하니증권	5,000,000
알리안츠생명	12,000,000	한국생명나눔운동본부	4,830,000
LG스포츠	2,470,000	한국오라클	2,000,000
우정사업본부	10,000,000	한진해운	3,000,000
우체국 훈 사랑 기금	90,000,000	후놀타리	4,520,000
이은정(배재열기금)	11,581,040	총액	334,796,386

2004년 기금안내

차카게살자 기금

① 기금의 성격

2001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 (주)드림팩토리클럽(대표이사 이승환)은 매년 초 '차카게살자' 콘서트를 열어 그 수익금 전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차카게살자기금'으로 조성되어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되어 집니다.

② 지원내역

매월 1명
300만원의 치료비 지원

(주) 에스콰이아기금

① 기금의 성격

(주)에스콰이아에서는 쇼핑백 판매금을 적립하여 2001년 2월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외래치료비와 일시후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지원내역

분기별 1명
200만원의 치료비 지원

배재열기금

① 기금의 성격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았던故배재열 어린이의 부모님께서 재단으로 전달해 주신 후원금입니다. 부모님께서 재열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용돈과 재열이의 부조금을 모아 고행증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② 지원내역

매월 1명(고형증양 환자)
100만원의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노동조합

① 기금의 성격

2003년 1월부터 재단의 쉼터운영을 지원해 오던 이화여자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올해부터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를 후원합니다.

② 지원내역

분기별 1명
110만원의 치료비 지원

이래기금

① 기금의 성격

2001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김이래 어린이를 돕기 위해 특전사들의 모임인 '검은베레기'에서 각종 모금활동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이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후원금을 이래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김이래 부모님께서 후원금 전액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4천만원의 '이래기금'이 만들어 졌으며 이 기금은 이래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뿐만 아니라 생계조차 이어가기 힘든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② 지원내역

매월 1명
100만원의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알리안츠생명기금

① 기금의 성격

알리안츠생명(대표이사 베르너 체델리우스)에서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 지원으로 총 1,2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였습니다.

② 지원내역

분기별 2명 (3월·6월·9월)
200만원의 치료비 지원

웃음을 전하는 사나이

파이! 파이! 파이!!

작년겨울 세브란스병원 송년잔치에서 청소년 모임 아이들은 차력 쇼를 선보였습니다. 은박지로 만든 쇠파이프를 힘겹게 절단하는 모습이며, 콧바람으로 PT병을 펴는 형과 누나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한바탕 시원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맛깔 나는 입담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한 청년이 시선을 끄니다. 바로 자칭·타칭 싸이(가수 싸이를 닮은 정환이의 별명입니다.~) 조정환 군이었습니다.

꼭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었다는,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정환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추억...

1997년 10월 17일.. 그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날 그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어려서부터 코피를 자주 흘리긴 했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 횟수도 잦아지고, 코피를 쏟는 시간도 길어졌다. 살도 빠지고 혈액이 없이 창백해지는 증상까지 보태지면서 큰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 믿기 어려운 진단을 받게 된 것이다. 진단을 받고 한동안, 그는 침대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잠자는 것으로 보내야 했고, 누가 찾아오는 것도,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그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방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좁은 병원 안에서도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며 많이 웃고 활발한 모습을 잃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를 보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갔다. 차차 병원생활에도 익숙해져 가면서, 원래 그의 모습으로 돌아와 밝음을 되찾고 긍정적인 자세로 치료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게 밝음을 되찾아준 그 친구는 지금 멀리 떠나고 없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병원 생활 중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그는 어느 치료보다 척수 주사를 맞는 것이 아주 큰 곤욕이었다고 한다. 주사가 한번에 성공적으로 놓이게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지만, 어떤 날은 주사 바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수십 번의 꽃힘을 당해야 했다. 그 고통 중에도 그는 사춘기 소년의 오기(?)로 바늘이 꽂히는 횟수를 세었다고 한다. 그 결과로 스물한번이라는 최다기록을 그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추억은 병원 밥에 질린 그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어준 지하식당가의 국밥이었다. 국밥집이 문을 열기 한 시간 전부터 국밥집으로 내려가 그 앞에서 기다리다 사먹던 그 국밥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조정환

1984년 2월 12일생
1997년 10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2001년 1월 치료종결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전공 2년



★★일상...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병마를 이겨낸 정환이의 일상은 한마디로 “복잡·다양”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은 휴학중이지만, 대학 2학년의 정환이는 신앙활동, 아르바이트, 소아암청소년 모임, 태권도 동아리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울겨웁엔 친구들과 스노우보드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바쁠 텐데, 그는 꾸준히 무언가 일을 만들고 있었다. 울겨웁엔 해외선교를 다녀올 예정이며, 기회가 된다면 소아암 어린이 완치를 기원하는 재단의 도보순례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 그의 넘치는 에너지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부탁...

그는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좌절과 절망보다는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병마와 싸워나가길 부탁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이 쉽게 찾아오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했다. 그럴 때마다 병을 이겨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치료로 인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도록 권하고 있다. 그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상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머리를 기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염색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힘을 냈다고 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병마와 싸워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은 정환이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병마와 치료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여러분, 곳곳이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모두 힘내세요!!!

★★★★꿈...

그의 전공은 신학이다. 그의 꿈 역시 목사가 되는 것이다. 입심 좋게 아이들 앞에서 웃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꿈이 개그맨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던 터라, 그의 전공과 장래희망을 듣고 조금 놀라기도 했다. 그가 목사가 되길 꿈꾸기 시작한 건 다른 아닌 힘든 치료기간 중이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었고, 그런 생활이 그의 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가 꿈꾸고 있는 목사는 보통의 목사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점잖은 복장을 하고 신자들 앞에서 말씀만으로 신앙을 전하기보다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더 많은 삶을 체험하길 원하고,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 하나의 꿈이 있다. 다른 아닌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오래도록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속에만 품어두었던 그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남몰래 키워온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시간 동안, 그가 상대에 대한 깊은 배려와 투철한 희생정신이 갖춰진 훌륭한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두 가지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빌어본다.

심터에서는...

소아암관련 미니도서관 개관



서울지역 3개소(서울, 신촌, 여의도) 우체국 한 사랑의집에 『소아암관련 미니도서관』을 마련하여, 소아암관련 국내외 각종 도서와 영상물을 구비하였습니다. 총 500여점의 소아암관련 도서 및 시청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 현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암관련 미니도서관』은 소아암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오니, 다음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용대상 : 소아암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가능합니다.
- ◎ 이용시간 : 평일-하절기(3월~10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동절기(11월~2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 이용가능 서비스 : 열람, 대출 및 자료복사
- ◎ 문의처 : 서울 ☎ 02)766-7671 / 신촌 ☎ 02)363-7671 / 여의도 ☎ 02)704-8310

「소아암관련 미니도서관」은 행정자치부의 2003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아암 관련 정보의 부족함을 느끼셨던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대구 우체국 한 사랑의집



가족과 함께한 새해맞이

지난해 12월 대구 우체국 한 사랑의집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부곡하와이로 겨울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아픈 아이들이라 걱정도 많았는데, 병원 밖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아픈 후 처음 타보는 눈썰매에 환호성을 지르고 놀이기구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답니다. 저녁에는 '소원성취 새해맞이 연 날리기'를 위한 연 만들기, 우리 가족을 생각해보는 점토 만들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만든 연을 날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오가며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병마와 싸우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 부산에서 전하는 세 가지 이야기 ●

하나, 부산 우체국 헌 사랑의집이 지난 12월 동아대학교의료원 후문(3분거리) 인근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만 넓은 컴퓨터실 덕분에 아이들은 이곳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놀이방, 컴퓨터실, 거실, 주방, 사회복지사실이 있고 2층에 숙식할 수 있는 방 2칸이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 주방은 1,2층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유림건설에서 쉼터의 리모델링뿐 아니라 물품까지 구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너무도 고생하신 유림건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둘, 올 1월, 유림건설에서 설을 맞아 고향을 갈 수 없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본부장이하 직원들이 대형 프로젝션 TV와,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 생활용품 등을 한아름 들고 오셔서 훈훈한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대형 TV로 비디오를 보면서 극장에 갈 필요 없을 것 같라며 아이들이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유림건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과 많은 기업의 동참을 유도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셋, 헌혈증으로 전해진 따뜻한 소식입니다. 우선 항상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애쓰시는 별난 아저씨께서 작년 한 해 동안 행사를 하면서 모금된 헌혈증과 후원금을 가져 오셨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소중한 사랑이 가득 담긴 성금을 환자 보호자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봉한 후, 소중하게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별난 아저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는 LG농구단에서 사랑의 헌혈증서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아진 700장의 헌혈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헌혈증은 전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재단과 우체국 헌 사랑의집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미주 사회복지사 〉

부산 우체국 헌 사랑의집에선 4월부터 매일 1회 1년간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병, 영양, 가정간호, 스트레스 관리 등의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17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244-7677)

또 하나의 이웃사랑 실천

김 현 수
유림건설 사장



어느덧 열었던 땅이 녹고, 닫혔던 꽃망울이 터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유림건설은 고객이 전해 주신 사랑으로 키워 온 기업으로써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보답의 길은 아직 멀지만 한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 소아암 가족의 쉼터인 '부산 우체국 훈 사랑의집'이 병원과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위치를 옮겨 가족들이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 옮겨갈 곳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소아암과 힘겹게 싸우며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힘겨움에 마음 아파하며 빨리 완쾌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전해주고 싶은 생각에 저희 유림은 우리 손으로 직접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 보자는데 그 뜻을 모았습니다.

병에 맞서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해맑고 어린아이들의 그 힘든 과정 속에 잠시나마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은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며 보람이었습니다. 저희 유림건설은 본사와 현장 각각에서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작은 도움이나마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란 미래의 어느날, 그 친구들이 저희 유림에서 동료로서 함께 일하게 되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봅니다.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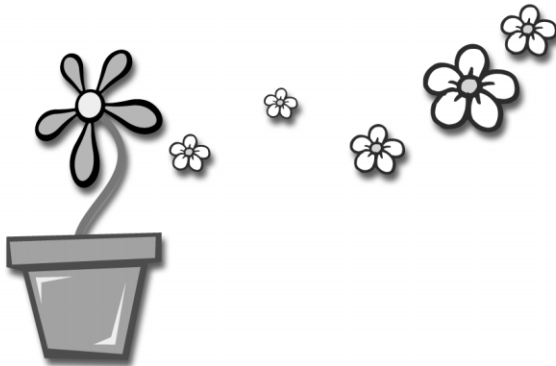
신규회원 소개(2003. 12. 1. ~ 2004. 2. 29.)

장세림 양지은 이승영 정미경 박호진 전병석 박진수 김현량 임태호 정은진 윤혜정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입니다. (2003. 12. 1. ~ 2004. 2. 29. / 가나다 순입니다.)

강미성 강철규 곽자영 권기원 권세관 권은영 김민수 김병철 김석환
 김수완 김용선 김용환 김용훈 김재광 김창규 김형묵 김형수 김혜리
 김혜순 노환국 마인동 문은주 박영도 박용길 박현진 서경애 서유완
 서해철 서홍찬 설복용 송영자 신석일 신재년 심승현 안덕호 안선진
 오경태 유이림 윤계근 이동진 이영대 이영란 이영수 이윤미 이은주
 이재문 이주상 이지현 이향자 임미경 임재영 장성욱 전순덕 정경호
 정주연 정태철 정혜주 조규록 조선화 조성희 조용호 조항숙 조형성
 주동원 최기하 최대우 최종철 최창훈 허은석 허현진 현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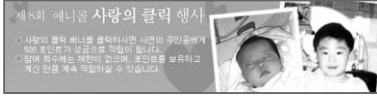
- ◆ 부산지역 체신청에서 단체로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주신 수호투사님, 이미 수호투사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4. 2. 29. 현재까지 1,051분이 수호투사로 가입해주셨습니다.)
- ◆ 수호투사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

후원계좌 안내

- ◆ 예금구좌
 - 30-03-00236(조흥은행)
 - 01299-01-00327(우체국)
 - 09-000260-04-015(기업은행)
 - 001-01-2333(국민은행)
 - 029-01-17694(농협)
- ◆ 예 금 주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모이는 곳

1 애니콜랜드



삼성전자 애니콜랜드에서는 2003년 12월 한달 동안 애니콜 사용 고객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형식의 '사랑의 클릭 행사'를 통해 총 13,489,000원을 재단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랑의 클릭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포인트를 적립해 주신 애니콜랜드와 그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4 한국 오라클

한국오라클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회사 내에 소아암 환아를 위한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된 치료비 200만원과 헌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라클에서 보내주신 사랑은 민웅기 어린이(급성림프구성백혈병, 여의도성모병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오라클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 개인후원자(담서원, 담경선)

어느 날 후원금 전달을 위해 재단을 직접 찾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봉투를 하나 건네시며 담서원, 담경선씨를 대신하여 방문하셨으며, 치료비가 필요할 아이들에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해주신 후원금 5,000,000원은 석범창 어린이(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영남대학교의료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KT 캠페인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KT '집전화로 사랑을 거세요'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내 작은 도움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는 일일까요? 지금 KT 캠페인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에 참여해 보세요.

집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금의 일정액이 적립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갑니다.

■신청방법

1. 무로전화1516으로 전화하기
2.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 또는 홈페이지(<http://1516.kt.co.kr>) 방문 후 신청가능 합니다.

6 한진해운 서울지점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한진해운 서울지점에서 포상으로 받은 상금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로 써달라고 하시며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무척이나 추웠던 12월 한진해운 서울지점 분들께서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중인 박미르 어린이(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게 치료비 300만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한진해운 서울지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3 교보생명과 교보문고가 함께 하는 마음에 힘을 주는 책



2004년 3월 2일 교보생명빌딩 앞마당에서 '마음에 힘을 주는 책' 캠페인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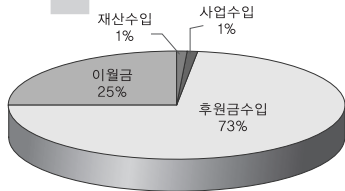
교보생명과 교보문고는 어려운 현실에서 책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한 『마음에 힘』 캠페인을 통해 마음에 힘을 주는 책을 지정하고 그 판매 수익금의 1%를 적립하여 재단에 전달할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보생명과 교보문고에 감사드립니다.

7 출산과 함께 나누는 기적

재단은 공여용 제대혈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2003년 11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 제대혈 기증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캠페인결과 총 1,071건의 제대혈이 기증되었습니다. 기증된 제대혈은 오염도, 조직적합성 항원, 세포 유핵수 등 34개의 검사를 거쳐 보관되며, 제대혈의 데이터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회 내 중앙제대혈데이터센터를 통해 의료진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소아암을 비롯한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제대혈을 기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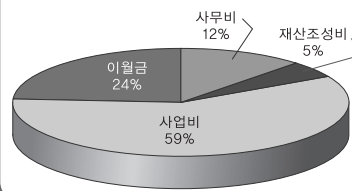
2003년 사업보고

1. 수입



재산수입	23,450,648
사업수입	24,528,500
후원금수입	1,747,531,066
이월금	586,796,311
접수입	1,845,679
예수금	1,138,770
합계	2,385,290,964

2. 지출



사무비	293,615,929
재산조성비	124,107,110
사업비	1,394,496,928
이월금	572,612,141
기타	458,856
합계	2,385,290,964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이식비 지원	5명	233,686,787	16.76	
	입원치료비 지원(일시후원)	101(건)	255,241,000	18.30	
	외래치료비 지원	117(명)	82,400,000	5.91	
	헌혈증 지원	18,698(매)	149,584,000	10.73	
	부모회 지원	-	198,140,200	14.21	
	지정후원	-	81,842,000	5.87	
	추진경비	-	1,148,790	0.08	
정보 지원	홈페이지운영	-	7,394,662	0.53	
	소식지발간	4회 / 38,000(부)	6,123,880	0.44	
	소책자발간	3회 / 5,000(부)	1,855,870	0.13	
정서적 지원	상담	2,581(건)	1,931,620	0.14	
	입원환아집단활동	-	31,676,770	2.27	
	캠프	3(건)	28,824,830	2.07	
	가발지원	40(명)	28,191,570	2.02	
기획 사업	가족행사	9(건)	30,787,390	2.21	
	직원교육	-	1,966,100	0.14	
	홍보사업	-	27,345,080	1.96	
	이식비후원회원관리	4,424(명)	8416,680	0.61	
	운영비후원회원관리	1,400(명)	6,265,995	0.45	
	시설비후원회원관리	60(명)	162,020	0.01	
	유관단체관리	-	35,326,604	0.25	
시설운영사업	자원봉사관리	-	1,308,510	0.09	
	후원개발비	-	25,245,370	1.81	
	시설운영사업	쉼터(6개소)	119,585,200	8.58	8.58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	-	61,840,000	4.43	4.43
합계			1,394,496,928	100	100

▶▶ 현증지원과 가발지원 현황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3.12.~2004.2.)



김민승(남/만 2세)
망막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4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병찬(남/만 15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1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김선민(남/만 1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3월 제대혈이식 시행



김아영(여/만 10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2월 제대혈이식 시행



김정희(여/만 12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2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김주한(남/만 11세)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3월 제대혈이식 시행



노혜리(여/만 8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2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박유담(여/만 7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3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박은주(여/만 14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4월 동종골수이식 시행예정



박은솔(여/만 2세)
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
2004년 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신영재(남/만 18세)
급성골수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2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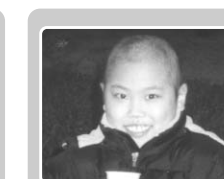
신현주(남/만 15세)
급성골수성백혈병/전남대학교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예정



우승호(남/만 12세)
급성혼합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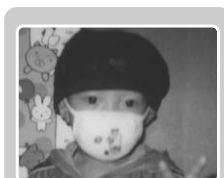
윤성부(남/만 10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3월 제대혈이식 시행



이선우(남/만 11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1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이현우(남/만 12세)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4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장기연(여/만 3세)
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2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주재련(여/만 10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
2004년 2월 제대혈이식 시행



최동규(남/9개월)
연소형골수단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
2004년 4월 동종골수이식 시행



하정훈(남/만 5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
2004년 4월 제대혈이식 시행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4. 2. 29. 현재)

참여후원자 : 2,724명 구좌수 : 12,838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3. 12. 1. ~ 2004. 2. 29.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국민은행 CMS

강명화 김정임 김주희 나선미 나형호 박연정
서정우 서창석 엄현조 유혜영 이성희 이명미
이영조 이재석 전종호 진영옥 채민정 최병옥
최순정 최예진

기업은행 CMS

이우철

농협 CMS

김명수 김명철 김상민 김영이 김은자 김태완
박지원 백승환 신동주 이기태 이성민 장상희
정종숙 정현숙 조은성 최희진 홍석현

대구은행 CMS

안지윤 여호준 정혜임

부산은행 CMS

김보라 박도호 엄진희 예이스상사

신한은행 CMS

양준호 이미숙 임봉주 최정미

외환은행 CMS

김선희 김현준 이원희 정현지 최상주

우리은행 CMS

신청숙 양다현 오성엽 오승엽 이수연 이수화
장희선 정희경 허윤호

우체국 CMS

정은숙

제일은행 CMS

김현실 안상은 오지환 홍성연

전북은행 CMS

조경애 홍인경

조흥은행 CMS

김경숙 김민정 김영호 김형돈 박종원 백선희
신미경 안달용 유서영 한수현 허정숙

하나은행 CMS

신영아 임규오 최성옥

농협(029-01-170940)

전미경

후원계좌 안내

경남은행 : 514-07-0175564

광주은행 : 200-107-315315

국민은행 : 031-01-0414-356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농협 : 029-01-170940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부산은행 : 070-01-021379-8

신한은행 : 394-01-000694

외환은행 : 141-22-00799-6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체국 : 012989-01-003313

제일은행 : 225-20-385050

조흥은행 : 367-01-192434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한미은행 : 100-59711-251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천사백 후원자님도 CMS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CMS란?

후원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후원자님 명의로 된 통장계좌번호를 재단에 알려주시면, 재단에서 후원자님을 대신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
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연장하실 필요
가 없으며, 해지 및 신청을 원하시는 후
원자님들께서는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됩
니다.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
께 발송됩니다



◆ 사랑의 헌혈증서 (2003. 12. 1. ~ 2004. 2. 29.)

강성재(50)	권진욱(5)	금옥교회(57)	김범석(3)	김지영(2)
드림팩토리(148)	명지전문대학	산업시스템경영과(100)	무명(4)	박상욱(3)
배수자(3)	벼룩시장(543)	서울체신청(424)	원유일(25)	윤영석(1)
이근희(11)	임민지(75)	임정수(115)	정정화(63)	조은성(2)
채성석(8)	천강재(2)	한상덕(11)	현하옥(10)	

◆ 특별 후원금

2003년 2월 김재영 250,000 김중국 10,000,000 독일한인연합교회 70,266 부산청룡동금고 28,800
 비엠퍼시픽 1,000,000 사노피코리아 2,880,000 Steve Lee 112,160 신종희 300,000
 웰라코리아 1,000,000 윤호열 120,000 이성원 1,000,000 작은사랑회 1,000,000
 전정희 100,000 정소민 2,000,000 정원길 100,000 제천여고1반 100,000 조남희 326,670
 차기준 100,000 철도회원협력회 63,740 최두이 50,000 황현미 1,000,000
 황혜진 250,000

2004년 1월 고용석 100,000 주재현 1,000,000 프레쉬 2,277,000
 2월 부산동아대학교의료원 300,000

◆ 후원물품 (2003. 12. 1. ~ 2004. 2. 29.)

故이한결(母) 세탁기 고은석(母) 굴3박스 권진욱 도서생활권(2) 문화상품권(1) 김대홍 해산물
 김병찬(母) 굴1박스 한라봉 김성겸(父) 쌀 김영길(母) 굴2박스 김영훈 화장지 김치 김해경(母) 화장지
 김화정 화장지 김희준 쌀 노현용 과일 노혜리(母) 굴1박스 박성원(母) 김치 박지한(母) 화장지
 박찬중 가슴기 벼룩시장 케이크 서성혁 생선 서울대병원사회사업실 과자5박스 송승필 슬로우쿠키
 신미경 휴지(3통) 치킨(3) 장조림 신세정 음료수 과일 신현주(父) 식용유세트(2) 오로라월드 인형
 익명 전자레인지 정명진 생필품 정혜영 차약(9) 비누(16) 바디로션(5) 커피믹스(50)
 조혜령 음료수 김치 최영석 버섯 화장지 차약 비누 하미나 상품권(50)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신택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봄호는 HAN/DOK 한독약품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